

“다섯 아이 웃음이 정착의 이유”, 강진군 훈훈한 명절

빈집 리모델링·육아수당으로 도시 떠나 농촌에 뿌리내린 다자녀 가족

강진군이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장애인단체 19개소와 소외계층 440가구를 대상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 읍면면 귀촌가정 김 씨 가족은 부부와 자녀 5명으로 이루어진 다자녀가구로, 귀촌 전에는 도심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층간소음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을 접하고 강진으로의 이주를 계획했다. 강진품에 입주자 모임에서 두 차례 고베를 마신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강진에 정착한 김 씨 가족은 현재 제50호 강

진품에 거주가족이며 월120만 원의 육아수당도 지원받고 있다. 김 씨 부부는 5명의 자녀 모두 홈스쿨링으로 교육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다. 김 씨는 “도시에서는 층간소음 등 여러 걱정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강진에 와서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훨씬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행복하다”며 “빈집 리모델링과 육아 지원 정책 덕분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준 강진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위문 활동이 지역사회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보살피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미래의 주역들을 지킵니다!’ 재난대응 훈련

공군 1전비, 부대 인근 유치원서 화생방 초동조치 훈련 실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2월 10일(화) 지역 유치원에서 화생방 신속대응팀 초동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생물무기 진단, 제독 등 8종 14대의 장비를 비롯해 화생방 신속대응팀 요원 14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해, 신속대응팀 요원들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요원들은 훈련 전 시나리오 브리핑을 통해 상황 발령 후 출동, 현장 통제 범위 설정, 임무 분담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더해, 유치원이라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보호 수칙을 강조했다. 브리핑 종료 직후 생화학 테러 상황이 발령되자, 신속대응팀 요원들은 특수보호의와 공기호흡기를 갖추 현장으로 출동했다. 도착 직후에는 아이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동시에 오염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이어서 생물무기 진단 장비를 활용해 주변 오염지역을 탐지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팀에 인계했다. 현장 조치 후에는 유치원생 대상 화생방 장비 소개 및 시연이 이어졌다. 요원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방독면, 보호의 등 장비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며 화생방 훈련이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희망 아동을 대상으로 방독면·보호의 착용 체험을 진행해, 훈련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훈련을 주관한 1전비 유폴련(대위) 화생방지원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생방 초동조치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근 기관과 연계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광양경자청,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나선다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권역내 11개소 방문, 따뜻한 나눔 실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권역 내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지역 내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광양경자청은 광양·여수·하동 지역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방문해 쌀과 생

활용품 등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구중곤 광양경자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자청은 2004년 개청 이래 20여년간 명절마다 꾸준한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은행,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가족돌봄아동 지원

가족돌봄아동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 상생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공헌 행사’를 진행하고,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총 500만 원 상당의 장보기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생활 부담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표 가족돌봄아동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장,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광주은행은 가족돌봄아동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장보기 지원금을 전달하

고, 아동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 후원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역시 가족돌봄아동 22개 가정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가족돌봄아동이 책임과 부담보다 희망과 응원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 지원을 비롯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함평군 신광면 복지기동대, 새해 첫 주거환경 개선 ‘호응’

전남 함평군 신광면은 “지난 9일 신광면 복지기동대가 관내 독거노인 가정에서 올해 첫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주택 바닥재 노후로 인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바닥재를 제거하고 전기 바닥패널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복지기동대원들은 작업에 앞서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전기 바닥패널을 설치했으며, 가구 재배치와 실내 정리 등 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특히 시공 전·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 동선을 고려해 전기 바닥패널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바닥이 훨씬 따뜻해지고 생활하기가 한결 편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임의석 신광면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활동은 신광면 복지기동대의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현장 중심의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